



열번째 이야기

God, the Messenger and the Message

[23 '하나님의 메신저' 강연 후기]



BEE WORLD 최초의 사역부터 44년간 헌신하신 Al Bridges 선교사님이 BEE Korea의 초대로 4월 말에 열흘 간의 일정

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나는 빛진 자입니다”의 올해 표어를 정성껏 실천하는 본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선교사님은 도착 이튿날부터 바로 3일 동안 ‘The Messenger of God’의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많은 분들이 대면, 비대면으로 참여하여 함께 은혜를 누렸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상도동 본부 세미나실에는 지난 40여년간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기록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하나, 하나가 담고 있는 많은 사연과 생생한 모습속에서 그 연륜의 무게감이 느껴졌다. 1979년 비엔나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30대 초반 청년을, 오늘 70대 중반 선교사님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생생히 볼 수 있었다!



첫날 대면으로는 20명 가까이 참석하였고 줌으로도 40여 분이 참가하셨는데, 코로나19 시국의 긍정적 변화로 글로벌하게 멀리 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그리고 부산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다.



세미나 제목처럼 이번 주제는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메신저의) 하나님, (하나님의) 메신저, 메시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하루씩 진행되었다.

첫 날, 우리들의 영원한 주제인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는 노 선교사님의 진솔함에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둘째 날, 그분의 메신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결국 죄의 문제를 다루고 치유하며 반드시 회개와 정결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그분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는 바꿀 수 없는 현실 또한 마주하게 되었다.

셋째 날, 올바른 메신저로 바로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아 주실까? 이사야는 주로 나쁜 메시지를 전하는 운명이었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 좋은 메시지가 있음에 감사할 따름이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전해져야 하는 메시지다.

생명력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세미나를 듣는 와중 언뜻 스쳐 가는 단상 하나: “알”이라는 우리 옛말과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내용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꽤 흥미로웠고 설득력이 느껴지는 주장이었다. 세미나실 앞, 세미나 제목 아래 적혀진 선교사님의 이름을 보면서 이 분이야말로 지금, 그리고 평생 하나님(AI)과 세상을 이어주는 메신저(Bridges)로 살아오신 분이로구나 라고 느끼며 미소를 머금을 수 있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BEE 가족 우리 모두 주의 살아있는 메신저로 세우소서!!!



[취재 및 정리 김종영 편집 최선]

BEE 소식

- 2023년 “나는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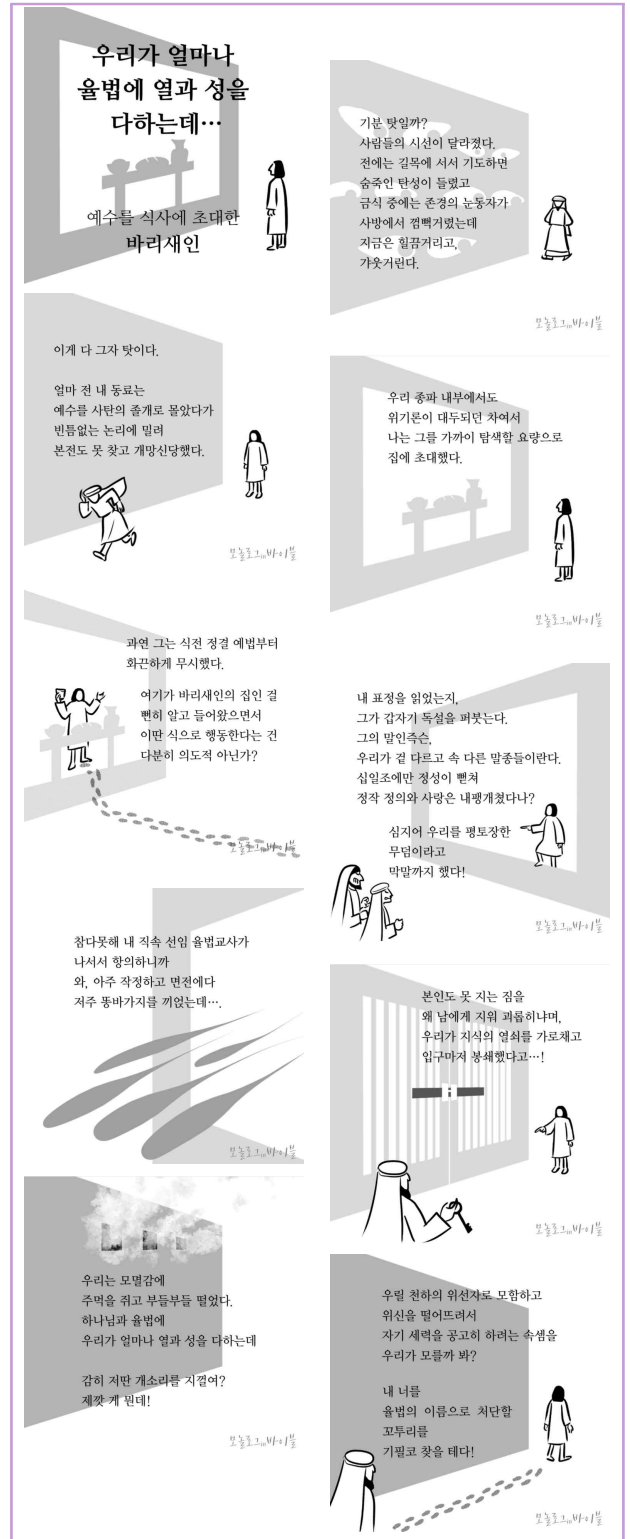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혜 있는 자나
야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 아프리카 현지화 사역을 위한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본부로 보내주세요! 선교에 잘 활용하겠습니다.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